

수목비엔날레, 참여작가 20개국 82명 확정

국내 49명 · 해외 33명 등 총 82명...300여 점 전시
해외 작가 13→40% 글로벌화...신진 · 거장 한 자리
8월30일 개막...목포 · 진도 · 해남에 총 6개 전시관

‘문명의 이웃들-somewhere over the yellow sea’이란 주제로 오는 8월30일부터 두 달여간 펼쳐질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를 수놓은 국내 · 외 참여 작가 명단이 확정 · 발표됐다.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사무국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참여 작가 명단과 전시 방향 등을 소개했다.

참여 작가는 ‘수목으로 그리는 세

계의 새로운 중심’을 목표로 20개국 82명이 참여한다. 국내 49명(작고 17명, 생존 32명)과 해외 생존작가 33명이 참가한다.

해외에서는 국제적 작가인 중국의 란한, 일본의 팀랩(teamLab)을 비롯해 중국 8명, 일본 5명, 네덜란드 · 호주 · 폴란드 각 2명, 대만 · 미국 · 말레이시아 · 베트남 · 싱가포르 · 인도 · 페루 · 홍콩 · 핀란드 · 인도네시아 · 이란 각 1명씩이다.

올해 수목비엔날레는 직전 2023년 비엔날레 당시 13%이던 해외작가 비중을 40%로 대폭 늘려 수목화의 글로벌화를 꾀했다.

목포와 진도에서만 열렸던 직전 비엔날레와 달리 이번엔 수목의 뿌리가 전남임을 부각시키기 위해 해남 고산 운산도박물관으로도 넓혀 3원 전시 체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시관은 해남 고산운산도박물관과 땅끝 순례문화관, 진도 소전미술관과 남도전통미술관, 목포 실내체육관과 문화예술회관 등 모두 6곳에 설치됐다.

또 하나의 주제 아래 전시관별 콘셉트를 설정해 해남은 최고의 수목 거장전과 붓의 향연을, 진도는 수목

의 확장-여백의 미와 실험성, 채움과 비움-수목추상 및 채색, 목포는 수목 예술의 동시대 가치와 새로운 자연 · 움직이는 수목 등으로 잡았다.

수목을 전통기법에 머무르지 않고, 설치 · 영상 · 디지털 매체와 접목한 실험적 시도를 확대한 점도 이번 비엔날레의 특징이자 달라진 점이다.

여기에 예년과 달리 진도 · 해남에서 프리뷰와 프리오프닝을 운영하는 등 개막행사의 다양화로 관심을 높이고,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 등 단체 관람객 유치, 기관과의 협약(MOU), 인센티브 지원도 차별화된 전략으로 꼽힌다. /김 호 기자

목포시립교향악단, 내달 8일 ‘2025 가족음악회’ 개최

시민문화체육센터서... 사전예매 · 전석 무료

목포시립교향악단(이하 목포시향)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시민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2025 가족음악회’를 5월 8일 오후 7시 30분, 시민문화체육센터 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목포시향 김동수 상임지휘자가 지휘를 맡고, EBS 라디오 클래식 프로그램 음악감독을 역임한 최연수 콘서트가이드가 진행

을 맡아 보다 깊이 있는 음악회를 만든다.

1부 무대에서는 ‘빼빼기 왈츠’를 시작으로, ‘새싹들이다’, ‘숲속을 걸어요’, ‘조금 느린 아이’, ‘5월의 크리스마스’ 등 총 5곡의 동요가 목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목포시향의 협연으로 선보인다.

또한, 지난달 광주 · 전남 초 · 중 · 고 ·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

개 오디션에서 선발된 이하윤, 임하윤 어린이가 무대에 올라 특별한 무대를 함께 꾸밀 예정이다.

2부에서는 2017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한국인 한국예술문화 부문 대상을 받은 피아니스트 신상일과, 이 지역 출신의 피아니스트 김현정이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를 협연하며 봄날의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전석 무료이며, 23일부터 온라인 예매처 ‘티켓링크’를 통해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목포=김재욱 기자



광주공원 청춘빛포차광장 버스킹 공연

26일~5월 31일...포크 · 재즈 등 20개팀 구성

광주시는 청춘빛포차광장에서 26일부터 5월3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6~8시 ‘청춘문화누리터’ 공연이 열린다고 23일 밝혔다.

공연은 포크, 어쿠스틱, 재즈, 아카펠라, 색소폰 등 20개팀으로 구성됐다.

26일 정효, 헤디, 당기리어쿠스틱밴드, 우물안개구리가 출연해 다양한 음악을 선보인다.

다음달 3일에는 해밀과 란지밴드, 김도브라스, 김나란이 재즈와 색소폰 연주를 들려준다. 10일에는 사운드힐즈, 솔아, 파티스트라이트 무대에 서고 17일에는 아홉달, 김경호, 섬과 도시의 공연이 예정됐다.

다음달 24일에는 싱어송라이터 소리와 무드리스트, 튜에이드, 31일에는 재즈밴드 Mo.C., 집시유랑단, 최의복 등이 다채로운 음악을 선사한다.

또 청춘빛포차광장 인근 회경루 잔디밭 야외무대에서는 2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5시 도심 속 전통문화예술공연 ‘회경



루-더 타임리스 스테이지(The Timeless Stage) 2025’가 열린다.

전통행렬 퍼포먼스, 전통타악, 연희놀이 등 융합 공연을 만날 수 있다.

모든 공연은 무료이며, 버스킹 공연은 광주미디어아트 플랫폼 품(G.MAP) 외벽의 미디어월을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김도기 기자

한국민화뮤지엄 ‘飛 완전히 새 됐어’展

5월말까지...신진희 작가 새들의 화려한 비상 20점 전시

강진군 대구면 청자촌에 있는 한국민화뮤지엄(관장 오슬기)이 진행중인 신진희 작가 특별전 ‘飛 완전히 새 됐어!’전이 오는 5월30일까지 연장된다. 해당 전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해 현재 한국민화뮤지엄 2층 기획전시실에서 진행중이다.

한국민화뮤지엄의 2025년 첫 특별전이기도 한 ‘飛 “완전히 새 됐어!”’전에서는 학, 봉황, 꿩 등 여러 길조의 상서로운 날개짓을 담은 20점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오방색을 모티브로 한 연작인 ‘오색학무’ 시리즈, 화려한 깃털을 뽐내

며 날아오르는 봉황의 모습을 담은 ‘나는 새다’ 시리즈, 전통적인 민화 제재 중 하나인 ‘화조도’를 작가만의 필치로 재구성한 ‘몽유’ 시리즈 등, 작가의 자유로운 상상력이 전하는 길상과 기원이 캔버스에 담겨 있다.

신진희 작가의 ‘새’는 힘겨운 현실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자유로움의 상징이다. 작가는 ‘전통 민화의 재해석을 시도하고 현대적 감성을 담아 넣은 이번 전시가 우리 민화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별개생면(別開生面)이 되길 바란다’라는 뜻을 밝혔다. /강진=김경선 기자



기 고

아파트 화재 시, 올바른 대피요령 숙지를



한 선 군

/고흥소방서 과역119안전센터

최근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다치고 42명이 대피하는 화재가 발생했고 인천과 서울 노원구 아파트 화재로 40대 남성과 90대 여성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올바른 대피 또는 구조요청 방법은 무엇일까?

미리 한 번 생각해 놓는 것과 아무 생각이 없는 건 위기 상황에서 본인이나 소중한 가족, 이웃의 생

사를 결정짓는 큰 차이를 만들어 낸다.

아파트 화재 상황에서의 인명피해는 주로 연기 흡입이나 화상, 추락(대피 중 사망) 사례가 많다.

최근 5년 동안 아파트 화재 사망자의 행동을 분석한 결과 특히 대피 중 사망하는 경우가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던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화재 발생 시 무리한 대피보단 화재 상황에 따라 대피 여부를 판단하고 경우에 따라선 실내에 대기하며 구조요청을 하는 게 더 안전할 수 있다.

자택에서의 화재 발생 시 대피가 가능하다면 젖은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를 유지하며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 피난시설

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해 대피한다.

이 때 엘리베이터는 절대로 타지 않는다.

대피공간이 없는 경우나 자택 외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화염 또는 연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창문과 현관문을 닫고 상황을 주시하며 구조를 기다린다.

평상시에 자신이 사는 아파트 내 피난시설의 유무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

대표적인 피난시설은 방화문으로 이뤄져 있는 대피공간과 창 밖으로 탈출할 수 있는 완강기, 발코니를 통해 하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 얇은 석고보드 등으로 이뤄져 누구나 쉽게 부수고 대피할 수 있는 경량구조칸막이 등이 있다.

새 희 망 새 언 론 새 천 년



NEW AGE NEWSPAPER - THE HONAMMAEL

호남매일

- 호남인과 함께 하는 신문
- 정도를 걸어가는 신문
- 공익을 생각하는 신문

-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 (062)363-8800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 264-1)
- ▶기사제보 · 독자견견 • TEL : (062) 363-8800
- FAX : (062) 362-0078

- ▶광고문의 • TEL (062) 363-0005
- ▶서울지사(취재본부) : 010-8803-1472
- ▶인터넷 참여 : <http://www.honmae.co.kr>
- ▶E-mail : honamnews@hanmail.net
- honammail@naver.com

지국안내

총 장.....223-4123
무 등.....224-4188
등 부.....234-4235
학 등.....225-0651
광 천.....374-2120
화 정.....374-3713
금 호.....376-7153
생 존.....371-9584

상 무.....381-5310
서 부.....661-0004
송 암.....362-4102
능 성.....362-4102
진 월.....671-7276
봉 선.....675-5530
중 앙.....521-5640
중 흥.....433-1503
양 산.....574-3745
문 암.....521-4270

오 치.....261-9461
문 흥.....261-9462
일 곡.....573-3200
동 문.....525-8894
두 암.....266-1920
첨 단.....971-1920
신 창.....955-0451
월 곡.....941-9174
송 정.....010-5524-3638

지사안내

목 포...010-8718-1234
순 천...010-9656-1383
광 양...010-9656-1383
장 흥...010-9193-6322
담 양...010-9067-4076
곡 성...010-5602-1785
구 레...010-8597-0053
보 성...010-3626-4776

화 순...010-2430-5055
영 광...010-9860-5489
완 도...010-5066-4708
장 흥...010-5665-8354
신 안...010-2028-4800
강 진...010-3608-0472
장 성...010-3610-7824

함 평...010-3616-4282
영 암...010-4604-3742
무 안...010-2050-0136
진 도...010-8525-4567
해 남...010-3471-6542
광 산...010-7613-4320
고 흥...010-4644-8383